

“노조 할 권리 보장이 비정규직 없애는 지름길”

28일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정부, 정규직 전환 정책 주춤. 여당,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조짐

민주노총이 10월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함께 가자 2017년 촛불 1년,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최종진 직무대행은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핵심은 노조 할 권리 보장이다. 노조 할 권리가 자본의 수탈을 막을 유일한 수단이다”라며 “민주노총이 많이 부족하다. 더 반성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할 것을 다짐한다. 비정규직 투쟁을 외로운 싸움으로 내버려 두지 말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라두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은 투쟁사에서 “최종범 열사가 일깨워준 간절함 때문에 우리는 업체 폐업, 바지사장, 원청의 파업대체인력에 맞서 질기게 싸울 수 있었다”라며



“오늘 대회를 기점으로 조직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천만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간절함을 깨우는 싸움을 해보자”라고 촉구했다.

박대성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장은 투쟁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지만 정부의 지침이 너무나 허술하다”라며 “인천공항공사는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

외하고 있다”라고 고발했다.

김진숙 홈플러스노동조합 사무국장은 “최저임금위원장이 고정상여금과 교통비, 중식비를 최저임금 범위에 넣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면 새로운 국민 투쟁을 만들겠다”고 경고했다.

조합원들은 대회를 마치고 광화문광장을 출발해 종로와 조계사 앞을 거쳐 다시 광화문광장으로 돌아오는 행진을 벌였다. 행진을 마무리한 조합원들은 오후 6시부터 시작한 '촛불은 계속된다' 촛불 1주년 대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가 대회 시작 전 이 용석 열사상을 수상했다.

“회사가 주도한 기업노조, 설립 자체가 무효”

유성기업지회, 기업노조 설립무효 확인 2심 승소...서울고법, “기업노조 자주성 독립성 없어”

법원이 회사가 주도해 만든 기업노조는 설립 자체가 무효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김우진 부장판사)는 10월 27일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제기한 노동조합 설립 무효 확인소송 2심에서 피고인 유성기

업노조의 항소를 기각했다. 기업노조의 설립이 무효라고 판결한 것.

앞서 2016년 4월 14일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성기업노조가 설립과 운영에 있어 사용자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밝혔다.

유성기업은 금속노조 조합원에게 임금과 복지에 불이익을 주고, 금속노조 조합원만 징계하고 고소·고발했다. 금속노조를 탈퇴를 유도하고 기업노조에 가입하도록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